

- 주요 뉴스: 미국 의회의 인프라 투자 법안 승인, 경제성장 제고 효과는 소폭에 그칠 전망
 - 미국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금리인상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 점차 단축
 - ECB 주요 인사,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예상. 금리인상 전망을 경계
 - 중국 10월 수출, 전년동월비 27.1% 증가로 예상치(24.5%) 상회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FOMC가 완화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주가 상승세 지속
주가 상승[+2.0%], 달러화 강세[+0.2%], 금리 하락[-10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호조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 지수도 긍정적인 기업실적 등으로 1.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간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2020년 9월 이후 최고 수준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 전환 관측 약화 등으로 6주래 최저 수준
 독일은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

※ 원/달러 환율(주간) 1.4% 상승, 한국 CDS 보합

		11/5일	10/29일	전주말대비			11/5일	10/29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697.5	4,605.4	2.00%	국채 금리 10y	미국	1.45%	1.55%	-10bp
	유럽	483.44	475.51	1.67%		독일	-0.28%	-0.11%	-17bp
	중국	3,491.6	3,547.3	-1.57%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612	28,893	2.49%		중국	50bp	46bp	4bp
	한국	2,969.3	2,970.7	-0.05%	위험 지표	EMBI+	380	381	-1bp
환율	달러지수	94.32	94.12	0.21%		VIX	16.48	16.26	1.35%
	유로화	1.1567	1.1558	0.08%		WTI유	81.27	83.57	-2.75%
	엔화	113.41	113.95	0.48%	원자재	구리	434.3	436.8	-0.57%
	위안화	6.3988	6.4056	0.11%		금	1,818.4	1,783.4	1.96%
	원화	1,185.2	1,168.6	-1.4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의회의 인프라 투자 법안 승인. 경제성장 제고 효과는 소폭에 그칠 전망

- 해당 법안은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었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이후 즉시 발효.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대신, 중도 성향 의원들에게 사회복지법안 예산안 동의를 주장하였으며,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수용
-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기존 정부 계획에 5500억달러의 추가 투자를 포함. 향후 10년 동안 총지출의 20%는 건물 및 도로의 건설과 보수에 사용되고, 인터넷망 확충과 지하철 및 철도항만공항 시설 확대 등에도 배분
- 경제학자들은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며 이동성(mobility) 개선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을 예상. 하지만 통상적으로 인프라 투자 법안은 실제 지출과 경제 효과 발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또한 새롭게 늘어난 인프라 투자는 미국 경제규모 대비 작은 편
- Moody's Analytics는 이번 법안으로 2031년까지 연평균 GDP가 0.12%p, 성장률은 0.02%p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 인플레이션 압력은 향후 공급망 차질 해소 가능성과 10년의 집행기간 고려 시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
- 한편 사회복지법안(1.75조달러)은 의회예산국의 세출보고서 발표 이후 하원의 최종 표결 가능. 다만 사회복지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어도 상원에서 수정 가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금리인상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 점차 단축

- 조지 총재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이번 발언은 인플레이션 위험의 장기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

■ ECB 주요 인사,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전망. 금리인상 전망을 경계

- 데 쿼도스 부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다만 인플레이션 둔화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부연.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2022년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면, 이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그리스 중앙은행 스투나라스 총재도 ECB의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

■ 영란은행 정책위원,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

- 텐레이로 위원은 영국경제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주장. 영란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경제성장 지원이라는, 상충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언급

■ 중국 10월 수출, 전년동월비 27.1% 증가로 예상치(24.5%) 상회

- 이번 결과는 연말 연휴를 앞둔 글로벌 소비수요 증가 등에 기인. 다만 전월(28.1%) 대비로는 소폭 둔화. Pinpoint 자산운용의 Zhiwei Zhang은 양호한 대외수요가 내수부진을 상쇄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

■ 중국 상무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되면 관세 인하

- 내년 1/1일에 RCEP이 발효되면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촉진시키고 조기에 완전한 형태로 시행되기를 기대. 또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여 다자간 무역시스템 구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Vitol Group, 사우디의 미국 측 원유 증산 요구 거절이 지속될 전망

- Mike Muller 아시아 담당이사는 사우디 최대 석유기업 아람코가 12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유 공급가격을 인상했는데, 이는 유가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라고 분석

■ 인도네시아 3/4분기 성장률, 3.51%를 기록하여 전분기(7.07%) 대비 둔화

- 코로나 19 억제를 위한 봉쇄 조치 등이 경제활동을 억제하면서, 예상치(3.76%) 하회. 다만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DBS의 Radhikia Rao는 3~4/4분기에 경제가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신용잔액(억달러): 299.1, 8월(143.8), 예상치(156.2)
- 중국 10월 무역수지(억달러): 845.4, 9월(667.6), 예상치(398.9)

■ 주요 경제 이벤트(11/8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11월 섹터 투자신뢰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신흥국 주가, 미국 주가와의 상승률 괴리는 지속될 전망 - 블룸버그

(Lost Decade Lingers as Emerging-Market Stocks Trail U.S. Peers)

- 올해 S&P500 지수는 25% 상승한 반면, MSCI 신흥국 지수는 2% 하락. 이에 MSCI 신흥국 지수의 S&P500 지수 대비 상대적 상승률은 20년래 최저 수준. JP 모건은 신흥국 증시보다 실적전망이 양호한 선진국 증시의 비중 확대를 권고
-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19 이후 신흥국의 미국 대비 상대적인 성장률 우위가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의 양적 차이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 또한 시가총액 측면에서 신흥국 증시의 비중이 42%에 이르는 중국의 성장 둔화도 주요 원인
- 실제로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12개월 평균 이익 추정치는 금년 하반기에 정체 국면에 있지만, S&P500 기업의 경우 7.5% 증가

■ 미국 노동시장, 금리인상을 위한 연준의 고용목표 달성까지 상당한 진전 필요 - WSI

(Hot-and-Cold Jobs Market Still Far From Full)

- 10월 신규고용이 전월의 부진을 만회했으나, 연준은 금리인상의 조건인 최대고용 목표 달성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 이는 연준이 단순히 취업자수를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또한 최근 고용 관련 지표들의 일관성도 부족
- 10월 실업율은 4.6%로 전월비(4.8%) 하락은 노동시장 수급이 팽팽하다는(tight) 신호가 되지만, 핵심노동인구(25-54세)의 비중은 낮은 수준. 다만 코로나 19 확산이 더욱 둔화되고 노동공급이 확대된다면, 내년 6월 최대고용 목표가 실현될 전망

■ 기술 혁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중요한 수단 - Financial Times

(Why innovation could stop inflation)

■ 미국 채권금리 하락, 우량 등급 채권의 대규모 발행을 촉진시킬 가능성 - 블룸버그

(Lower Yields May Spur Heavy Borrowing of U.S. Top-Rated Bonds)

■ 중국 6차 전원회의, 시진핑 3선 연임을 위한 포석을 마련할 공산 - Financial Times

(Rewriting history in China)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